

홀트 소식

아이들은 사랑받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WINTER 2017 | VOL. 188



겨울 이야기

연우의 미소로 겨우 내 얼어붙었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아이들의 미소처럼 포근한, 홀트의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사진 | 마이데디스튜디오

- 04 행복한 가족 만들기
- 07 홀트 인터뷰
- 10 싱글맘 Jump with baby
- 13 Love In World
- 16 사랑으로 크는 아이들
- 19 나눔기업 1
- 20 나눔기업 2
- 22 희망풍경 1
- 24 희망풍경 2
- 26 희망풍경 3
- 28 나눔이웃
- 30 Holt News



홀트아동복지회 모바일 홈페이지
m.holt.or.kr

통권 | 188호 · 계간 발행일 | 2017년 12월 22일 발행인 | 말리 홀트 편집인 | 김대열
발간위원 | 김병수(홍보팀장), 조선미(국내입양팀장), 김혜성(아동양육팀장), 유덕진(해외사업팀장), 박꽃송이(나눔협력팀장), 박재범(나눔지원팀장), 이창신(일신복지타운), 신유정(홍보팀) 발행처 | 홀트아동복지회 홍보팀 디자인 | 알투디투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9 TEL: 02-331-7171 FAX: 02-331-7149
이메일 | pr@holt.or.kr 홈페이지 | www.holt.or.kr
구독 요청 · 좋은 사연 · 좋은 제언을 기다립니다.

홀트아동복지회	
말리 홀트 이사장 이해경 이사(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임부웅 이사(HICS 부회장) 정용근 이사(전)동국대학교 교수 설태호 이사(주북상사 대표) 김경희 이사(전 홀트전국후원회 회장) 김정오 이사(연세대학교 교수) 박경수 이사(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홍현국 감사(공인회계사) 최수열 감사(공인회계사)	
본부 전국미혼모지원센터	T.02)331-7000 T.1588-7501
지방사무소 서울사무소 www.holt.or.kr 강원사무소 www.kwholt.or.kr 경기사무소 www.kgholt.or.kr 광주사무소 www.gjholt.or.kr 대구사무소 www.dgholt.or.kr 부산사무소 www.bsholt.or.kr 인천사무소 www.icholt.or.kr 전북사무소 www.jbholt.or.kr 충청사무소 www.ccholt.or.kr	T.02)331-7000 T.033)251-2344 T.031)217-5999 T.062)227-8877 T.053)756-0183 T.051)465-0224 T.032)424-0145 T.063)288-0880 T.042)586-1983
부속기관 홀트일신복지타운·일산요양원 홀트학교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봉종합사회복지관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달서구분리종합사회복지관 춘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31)914-6631 T.031)915-2911 T.031)929-1400 T.051)543-2431 T.031)790-2900 T.053)746-7501 T.051)760-3600 T.053)563-1007 T.033)251-8014 T.02)3142-5482
마포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입양가정지원센터 홀트 대구심리상담센터 홀트 광주심리상담센터 홀트 인천심리상담센터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홀트미추홀 전주영아원	T.031)790-2966 T.02)6938-5550 T.053)627-8875 T.062)363-8878 T.032)424-5839 T.032)424-1391 T.070)8210-1601 T.063)222-1559
홀트대구어린이집 마포어린이집 중동어린이집 홀트어린이집 하남은방울어린이집	T.053)746-7504 T.02)334-4743 T.02)375-6755 T.031)217-0437 T.031)790-2970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아름뜰 www.holtarum.or.kr 고운뜰·홀트고운학교 www.goun.or.kr 아침뜰 www.achim.or.kr 마포클로버 www.mapoclover.or.kr 대전클로버 www.djclover.or.kr 대구클로버 www.holtlove.or.kr 광주클로버 www.holtlove.or.kr/gj-clover	T.02)334-4614 T.031)216-9004 T.042)585-3004 T.02)322-3325 T.042)583-4006 T.053)654-0181 T.062)361-5900
국제개발협력사업 캄보디아사무소(홀트드림센터) 몽골사무소(홀트드림센터) 탄자니아(홀트드림센터) 네덜(홀트드림센터)	T.070)8244-7019 T.070)4006-4116 T.02)331-7085 T.02)331-7085

홀트아동복지회는 1955년 설립되어 소외된 아동·장애인·이웃을 돕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이며 전국 9개 사무소를 통해 국내입양 활성화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동과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홀트

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한 해를 마감해야 할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순간순간 도우시는 홀트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홀트 가족 모두가 동참하여 '홀트다움'을 만든 것이 마음속 가장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족의 개념도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부모 자녀가 있는 가정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구성하는데 홀트가 앞장서 나가기 위한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홀트는 '사랑을 행동으로, 아동과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따뜻하고 행복한 세상에 기여한다'는 미션과 '행복한 가족 만들기 100년, 자랑스러운 더 큰 가족 가슴 벅찬 홀트'라는 비전을 가지고 힘을 모아 나아갈 것입니다.

현재 홀트는 '홀트형 아동가족 역량강화 서비스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전 2020 추진 목표를 세우고 앞으로 3년 동안 홀트가 추진해야 할 내용으로 '전국적 가족지원체계 구축, 국내외 후원/결연 2배 성장, 홀트이미지/브랜드 강화, 인사/교육제도 및 IT 기반 선진화, 홀트다움 조직문화 구축, 분야별 전문가가 활약하는 사회복지기관'로 정하고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홀트는 미혼한부모의 자립 지원과 아기를 안정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롯데지알에스와 손잡고 다양한 지원사업과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KB 손해보험에서도 미혼한부모를 위해



Baby Care Kits와 Kids Kits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미혼한부모 직업훈련을 위한 지원과 자존감을 회복하여 아기와 함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입양을 통해 아이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신 국내외 입양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동 입양을 통해 꿈꾸시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희망합니다.

홀트가 한 해 동안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선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릿 시냇가에 있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보내 주신 것과 같이 돕는 하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홀트를 후원하고 복지사업을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가득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김대열 드림

함께라서 고마워요!

어느새 차가운 공기가 옷깃에 스미는 계절이 왔습니다. 이런 날에는 곁에 있는 누군가가 더욱 소중해집니다. 홀트일산복지타운은 홀트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생활시설입니다. 이곳은 중경증 장애인들이 함께 지내며 치료, 숙식, 직업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 공간이지요.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는 또래 친구 윤성이, 지환이, 진우는 소문난 개구쟁이입니다. 한집에 복잡복잡 살면서 서로 많이 싸우기도 하지만 또 가끔은 의젓하게 서로를 챙기기도 한다는 이 친구들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나뭇잎이 하나둘씩 떨어지는 어느 가을 날, 세 친구를 만나기 위해 홀트일산복지타운을 방문했습니다.



일산복지타운으로 오기까지

진우, 윤성이, 지환이는 현재는 특수학교인 홀트학교 3,4학년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 이곳으로 왔습니다. 체구가 작아 사람들이 종종 유치원생으로 오해하기도 한다는 진우는 아기 때부터 흡인성 폐렴, 심장비대증, 오목가슴 등의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입퇴원을 반복하여 선생님들의 애간장을 녹였던 진우. 아기 때 제대로 자라지 못한 몸과 마음이 이제 쑥쑥 커지려고 하나요? 진우는 무엇이든지 스스로 하려는 의지 강한

아이로 자라 언어치료나 모래놀이치료를 할 때면 왕성한 호기심을 갖고 수업에 참여합니다. 이런 진우와 가장 친한 친구는 지환이입니다. 일산복지타운은 몇 해 전, 장애의 경중에 따라 공간을 분리했고, 이때 진우와 지환이는 나란히 손을 잡고 현재 머무르고 있는 '영광의 집'으로 왔습니다. '영광의 집'에 많은 형들이 잘 챙겨주었지만 낮은 공간에서 적응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끈끈한 유대감이 생겼고, 그 유대감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남아 있습니다.

지환이는 성격이 조용하고 워낙 낮가림이 심해서 '영광의 집'에서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제법 걸렸습니다. 이런 지환이를 지금처럼 밝고, 좋아하는 노래를 크게 부를 수 있게 만들어준 건 썩썩한 진우의 힘이 컸죠. 출산 시 뇌손상으로 지적장애를 가지게 된 지환이는 꾸준한 치료 덕분에 지금은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환이는 노래 부르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얼마 전 장애인 합창단 '영혼의 소리'에 단원으로 참여하기 위해 오디션에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노래는 잘하지만 아쉽게도 낮가림이 심해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집에서, 치료실 가는 길목에서, 홀트일산복지타운 곳곳에서 지환이가 흥얼거리는 노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진우와 지환이 곁에서 묵묵히 함께하는 윤성은 여섯 개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수술 후 잠시 동안은 걷거나 뛰는 게 어색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회복해 진우, 지환이와 함께 어울리며 종종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1 영광의 집 식구들과 함께
2 함께 뛰어노는 윤성이, 지환이, 진우



우리는 서로 닮아가는 중

어느 아이들이 그렇듯 진우, 윤성이, 지환이는 서로를 조금씩 닮아가고 있습니다. '영광의 집' 앞에 노랗게 쌓인 은행나무잎을 치우는 지환이를 보고 진우, 윤성이라도 똑같이 빗자루를 들고 나섭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윤성이가 학습지를 하면 지환이도 따라하고, 서로의 말을 배우기도 하죠. 얼마 전 진우는 장염과 심한 감기로 고생을 했습니다. 방에 누워 쉬고 있는 진우에게 다가가 이마를 짚으며 많이 아프냐고 묻는 윤성이, 혈연으로 맺어진 인연은 아니지만 이 세 친구는 형제처럼, 또 친구처럼,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입니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가족을 혼인 관계로 이루어진 부부 또는 피를 나눈 부모, 자매, 형제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곁에 있는 이웃, 친구로 조금 더 범위를 넓혀 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재밌고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2017년 연중기획으로 입양과 미혼한부모, 다문화가족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2018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울타리 안에서 매일이 행복하기를, 홀트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시루마음 콩나물 이야기

시루마음 콩나물은 홀트보호작업장에서 만든 친환경 콩나물 브랜드입니다. 홀트보호작업장은 중증장애인 고용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입니다.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로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고, 수익금으로 중증장애인 삶의 질도 향상시키는 착한 콩나물. '시루마음 콩나물'을 소개합니다.



● 시루마음 콩나물 장점

- 국산콩 100% 사용한 무농약 콩나물
- 유전자변형 콩을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콩나물
- 해독작용과 관절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기황 첨가로 건강에 좋은 콩나물
- 친환경 인증 및 ISO 22000 인증

● 시루마음 콩나물 친환경 재배방법

- 성장촉진제 및 인공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5일 동안 정직하게 재배
- 물 순환식 재배방법 이용

☺️ 생산품 구매 및 후원문의 : 홀트보호작업장 031-914-6629



우리가 함께 풍요로운 선순환의 미학을 그린다

1 탐리더스
김윤정 회장



Interview

홀트의 고액기부자 모임인 탐리더스 김윤정 회장은 “모임에서 어린 편이라 제게 계속 회장직을 맡겨주시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지만 2013년부터 현재까지, 평균 임기인 3년이 넘도록 선배들을 모시고 리더로 활약할 수 있는 건 그녀만의 에너지와 진심이 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모임을 활성화하고 후원자들이 증가하는 데 일조한 것은 물론, 2013년 대비 후원금을 약 3배나 증가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 궁금해 그녀의 회사를 찾았습니다.

“어머~ 추운데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찾기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새하얀 피부만큼이나 미소가 밝고, 말투는 부드러우면서도 톡톡 튀어 경쾌한 그녀가 외국계 원자재를 다루는 물류회사 (주)씨스테 인웨그로지스틱스코리아의 한국 대표를 31세부터 15년이 넘도록 맡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 그제야 올곧은 말투와 눈빛, 고운 외모 뒤에 숨은 똑 부러지는 여장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혼자 채용돼 회사를 이만큼 성장시켰다니... 그녀가 리더로서의 자질을 얼마나 지녔는지, 탐리더스가 왜 계속 성장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지 금세 납득이 됩니다.

“나눔을 무조건 내 삶의 우선순위에 넣어주세요!”

김윤정 회장이 홀트와 인연을 맺은 건 2011년. 같은 계통에서 일하시던 분의 권유를 받은 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선뜻’ “OK!”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업이란 게 뜻대로 되지 않기 일썩인데, 이만큼 잘해올 수 있었던 건 좋은 사람들의 도움과 운이 따라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입니다. 그 좋은 기운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지고, 훗날 그들이 또 다른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선순환 체계를 만들고 싶은 바람이라고요. 누구보다 적극적인 후원 전도사가 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 입니다. 좋은 일은 함께하면 더욱 좋아지는 법. 사업 또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들에게 권유하다 보니 개인은 물론 기업후원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4년간 발굴한 신규위원만 15명 이상이고 전체 후원금도 약 3배나 증가시켜, 탐리더스의 성장과 안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막상 실천하지 못할 뿐, 의외로 나눔활동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정도의 후원금을 낸다고 생활에 지장이 가는 분들이 아니라서 더 적극적으로 권유할 수 있었고요(웃음). “후원 대상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홀트라는 기관의 속사정을 알고 난 후에는 다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활동하시더군요. 게다가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후원해주는 분들도 늘어나서 전체적인 회원 수와 모금액이 증가한 것 같아요.”

그녀는 특히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아 캄보디아 빈민 아이들을 시작으로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을 돕는 ‘꿈동이캠프’를 중심으로 후원하고 봉사활동을 합니다. 한창 중요한 시기에 놓인 자라나는 아이들이 꿈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미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탐리더스 활동을 하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작년에 편지 한 통을 받은 거였어요. 꿈동이캠프에서 만난 아이인데 ‘그동안 도움 주신 덕분에 엄마와 잘 살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더군요. 께욱 안아주는 걸로 마음을 표현한 게 다였지만, 이렇듯 제가 후원하는 아이들을 보면 무척 큰 동기부여가 돼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아나가는 그 또렷한 눈동자를 보면 ‘더 잘 크도록 도움을 줘야겠구나’ 다짐하게 되죠.”

몇 달 전에는 새로운 기회를 찾는 사건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져 수술까지 하는 사고를 당했던 겁니다. 깁스를 풀 지 이제 3주 정도 됐는데, 그 기간 동안 장애인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데가 얼마나 적은지 알고 깜짝 놀란 그녀. 다른 질병으로 인해 3년 사이 3번, 올해만 2번의 수술을



했는데 다리 다친 게 최악일 정도로 생활하기가 너무나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애인들에게도 관심을 가질 계획이죠.

“예전에는 어떤 사람들을 도와줘야 할지 잘 몰랐는데, 장의 역할을 하고 보니 그게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다리를 다쳤던 것처럼 제가 경험하게 되는 불편함들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후원 요청이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 한 승낙하는 편이에요. 기꺼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는 있으니까요.”

기독교 사상에 더해 남을 배려하고 보호하는 성향까지 가진 그녀는 ‘장은 사람을 이끌기보다 봉사하는 자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나 탐리더스라는 모임에서도 스스로를

심부름꾼이라 여긴다고요.

“나눔을 생각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나눔은 대부분 밀리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방법은 단 하나. 나눔활동을 무조건 내 우선순위에 넣어두는 거예요. 그럼 다른 일정을 조정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간단하죠(웃음)?”

정말 가치 있는 건 마음이라는 김윤정 회장은 후원이든 현장 봉사든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이 세상은 훨씬 아름다워질 것이라 말합니다. 자신은 물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보지 않겠느냐고...

“함께 키우고 함께 응원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임신 출산만으로도 벅거울 텐데, 미혼한부모들은 가족의 외면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러 장애물을 마주합니다. 홀트는 양육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미혼한부모의 자립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문화체현의 기회가 부족했던 가정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1박 2일 글램핑! 아름다운 자연에서 힐링하며 보낸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롯데지알에스는 올 한 해 동안 홀트와 정말 많은 곳에 나눔의 행복을 전했습니다. 'Mom 행복한 미션'을 주제로 미혼한부모 가정과 지인들을 초대하는 '특별한 돌잔치'는 엄마와 아이들에게 행복한 생일파티가 되었으며, '신나는 나들이'는 오랜만의 여유와 멋진 추억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1박 2일 글램핑'은 10월 18일(수)부터 19일(목) 이틀간 파주 동화힐링캠에서 진행되었는데요. 미혼한부모 25가정과 롯데지알에스 사룻데봉사단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랑운동회, BBQ파티, 김미경 강사의 힐미힐미(Heal me Heal me) 특강 등 다채롭고 뜻깊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참석한 미혼한부모와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미혼한부모들은 혼자서 생계를 꾸리고 아이를 돌보는 것이 쉽지 않은 않다고 말합니다. 특히 빠듯한 일상에서 아이와 함께하는 여행이나 문화생활을 계획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인데요. 글램핑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찾아온 여유를 즐기고, 아이들은 또래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사룻데봉사단이 1:1로 아이들을 전담하여 안전하게 프로그램을 소화했으며, 부모님들은 마음 놓고 한데 모여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글램핑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도 함께했습니다. 홀트의 홍보대사 '홀트 패밀리'인 스타강사 김미경 씨 인데요. 평소 미혼한 부모와 아동에 대한 마음이 각별해 홀트에서 다양하게 활동하는 김미경 씨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 늦은 시간 파주까지 달려와 주었습니다. 부모님들은 김미경 씨 특유의 유쾌한



1 글램핑에 함께한 롯데지알에스의 사룻데봉사단과 참여 가족들
2 함께 운동하며 단합하는 가족들
3 훌라후프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아동

입담과 재미난 이야기를 통해 배꼽을 잡으며 마음껏 웃었습니다. 또한 서로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하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김미경 씨는 부모이기 전에 누군가의 귀한 '딸'이고 '아들'일 부모님들을 마지막까지 응원하며, 따뜻하게 꼬옥 안아주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들, 미혼한부모와 아이가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홀트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홀트

글 황지혜 · 홍보팀

* 글램핑이란 : '매혹적이다'라는 뜻의 'glamorous'와 '야영'이라는 뜻의 'camping'의 합성어로 가구와 전기 등의 시설을 갖춘 텐트에서의 캠핑을 말합니다.





김영아

만5세 여아를 양육 중입니다. 아이는 언어장애로 인해 재활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영아 씨의 부모님 또한 몸이 불편해 아이와 부모님 모두 어렵게 돌보고 있습니다.

Q1. 아이를 돌보며 생활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아이가 아플 때 봐줄 사람이 없다는 게 가장 힘들어요. 간단한 입원이라도 하려면 보호자가 동행하여 동의서를 써야 하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건강이 좋지 않으신데 아이도 아프고, 저까지 아플 때면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아는 주변의 미혼부모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수술을 미루고 있다는 이야길 들은 적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어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일이라도 제대로 해볼 텐데... 아이가 유치원에 있는 오전 11시 ~ 오후 2시를 제외하고는 시간이 없는데, 그 시간만 일한다면 써줄 곳이 있을까요.

Q2. 오늘 행사 참여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아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런데 혼자서 못 나오거든요. 오늘처럼 글램핑과 같은 야외는 더욱더 어려워요. 집에 장비가 전혀 없으니 캠핑은 꿈도 못 꾸죠. 이럴 때 나와서 아색적으로 즐길 수 있으니 새로워요. 그리고 저희 텐트가 도토리나무 아래에 있어요. 아이가 도토리를 주워서 뽕새를 말고 좋다고 하더니 엄마 선물이에요. 특히 자원봉사자 분들이 1:1로 챙겨주니 아이들이 더욱 신나게 놀고, 엄마들도 오랜만에 제대로 쉴 수 있어 좋아요.



김대식

만3세 여아를 양육 중입니다. 미혼부의 출생신고 문제로 '궁금한 이야기 Y'에 보도되어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사업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동이 보다 안정된 여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무원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Q1. 오늘 행사 참여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옛날 군대 생각이 납니다. 장교출신이라 산에다가 지휘관 텐트 치고 훈련했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아이와 함께 놀러 오니 의미가 남다르네요. 저는 평소에도 최대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아이가 좀 더 커서 9~10살만 되도 친구랑 노는 게 더 좋다고 할 테니 말이지요. 아빠랑 노는 게 질린다고 할 때까지 기회만 된다면 아이와 함께 추억을 만들 겁니다.

Q2. 아이를 돌보면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안정된 환경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쪼개어 아르바이트를 하고, 공부까지 하니 생활비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은 않습니다. 다행히 홀트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많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 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Q3.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예전에 고시원 살고 정말 힘들 때, 여기저기에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받아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받은 사랑을 나누고자 독거 노인 분들께 반찬을 나눠드리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미혼부'들을 위해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 법적 절차와 같은 정보를 비롯해 옷, 장난감, 도서 등이 필요한 미혼부 가정에 후원처를 연결해주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먼 훗날 미혼부들을 위한 생활공간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 아빠들이 일터에 나갈 때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퇴근 후에는 아이와 교감하는 방법, 육아 방법을 공유하는 멋진 곳 말입니다.



김대식씨와 자원봉사자들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미혼부 공동체 페이스북 페이지 [APUM]
* AP=아빠, UM=엄마

몽골의 겨울나기

몽골의 겨울은 험량했다. 천하를 호령한 칭기즈칸이 누웠을 초원, 밤하늘에 춤추하게 수 놓인 별을 기대했지만 이내 환상이 깨졌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칭기즈칸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매케한 공기가 우리 일행을 덮쳤다. 공항 주차장을 빠져나와 시내로 진입하니 거리 곳곳에 쌓인 눈의 흔적이 보였다. 회색빛 눈. 평생 눈을 본적 없는 사람이 여기에서 눈을 보았더라면, 눈은 원래 흰색이라고 설명해도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다. “게르 촌에서는 종종 1미터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나마 여기는 좀 낫죠.” 난색을 보이자 몽골 현지 동행인이 설명했다.

울란바토르 중심지는 정부관할로 중앙난방을 하고 있다. 도심지에서 벗어난 게르 촌은 영하 40도의 추위를 석탄 난로에 의지해서 살아간다.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면 각 게르에서 발생하는 석탄 매연의 양은 어마어마하다. 매연은 게르 촌의 대기를 오염시키고,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지만 어쩔 수 없다.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석탄을 구입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들에게 감사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빈부의 격차는 공기 질의 차이를 만들고, 건강의 격차까지 만들어냈다.





게르 촌의 소녀, 엔흐마라르

“우리는 여기를 쓰레기 마을이라고 불러요.” 몽골에 도착한 다음 날, 홀트에서 결연후원을 받고 있는 몽골 소녀 엔흐마라르를 만나기 위해 동사무소 복지담당자와 게르 촌으로 향했다. 판자를 열기설기 이어붙인 집들 아래 작은 도랑에는 아무렇게나 버려진 쓰레기 더미가 추위와 함께 얼어가고 있었다. 얼마나 올라갔을까. 허름한 게르에서 한 여인이 나와 우리를 반긴다. 엔흐마라르의 엄마 엔흐자르갈이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들어오세요. 여기가 우리집이에요.” 산달이 얼마 남지 않은 그녀는 눈길을 디디는 발걸음이 조심스럽다. 엔흐자르갈은 열입곱살에 시골에서 올라와 엔흐마라르의 아빠를 만났다. 큰딸 엔흐알타이, 둘째 엔흐마라르, 셋째 엔흐후스랭. 막내를 낳고 얼마 있지 않아 남편은 청천벽력같은 말을 했다. “남편이 갑자기 다른 여자와 살겠다고 떠나겠다고 했어요. 아이들 셋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아이들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아야 하지만 연락도 닿지 않아요. 혼인관계였다는 걸 증명할 서류가 아무것도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남편이 떠난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생계의 막막함이 밀려왔다.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지만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 시련은 한꺼번에 찾아왔다. 엄마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둘째 엔흐마라르는 팔팔 끓는 솥을 건드렸고 그 안에 있던 뜨거운 음식이 아이에게 와락 쏟아졌다. 그 당시 별경계 부은 살갓이 벗겨지는 심한 화상을 입었지만 병원에서는 간단한 치료밖에 할 수 없었다. 하루라도 돈을 벌지 못하면 아이들 셋과 함께 굶어야 하는 상황...병원에서는 피부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엔흐마라르를 안고 병원을 나왔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에 그녀는 재혼을 선택했지만, 살림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공공 얼었던 땅에 드리우는 초록빛 새싹

사진을 찍기 위해 엔흐마라르에게 한 곳에 모여 달라고 부탁을 했다. 장난치는 어린 동생을 옆 자리에 앉히는 손이 아무지다. “이제 됐어요” 카메라를 내려 놓으니 엔흐마라르가 말을 건다. “화상 입은 곳은 여기예요” 옷을 걷어 배를 보여주는데 옆에 있던 엄마가 거들었다. “몸이 클수록 엔흐마라르 팔과 배 살갓이 팽팽하게 당겨져요. 피부가 늘어나지 못해서요” 낯선이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려 옷을 걷어 올리는 아이와 엄마에게 간절함이 묻어나 어쩐지 마음이 애잔해졌다. 혹여 추울까 옷을 가만히 내려주니, 아이는 고개를 떨구고 바닥을 내려다본다.

언젠가 피부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그리고 당장의 음식을 사기 위해 엔흐마라르 엄마는 틈틈이 옷을 만든다. 어린아이가 입을 수 있는 몽골 전통 옷인데 손으로 한 뼘씩 잇대어 만들다보니 완성이 더디다. “옷을 많이 만들지는 못해요. 완성된 옷은 주말마다 시장에 나가 팔지만 한 달에 겨우 5, 6벌 팔 수 있을 뿐이에요. 그나마 옷감과 밥을 사면 남는 돈이 없어요. 일을 못하거나 옷을 팔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때는 엔흐마라르 결연후원금으로만 살아요. 그 돈으로 학교에 돈을 내거나 먹을거리를 사요.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여느 아이들보다 가정형편이 많이 어려운 엔흐마라르는 3년 전부터 홀트드림센터 선생님의 추천으로 결연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엄마는 인터뷰 도중 엔흐마라르를 보며 말을 이어갔다. “딸애 소원은 우리 가족이 게르가 아닌 단독주택에 사는 거래요. 화장실이 너무 무서워 좋은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면...언제쯤 그 소원이 이뤄질까요” 옆에 앉은 엔흐마라르는 우리가 건네준 선물 꾸러미 안에 있는 사탕봉지만 만지작거린다. 가난은 아이에게 너무 빨리 염치를 가르쳐줬다. 한 숨짓는 엄마의 눈에 깊은 시름이 스친다.

몽골은 황량하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딱친 현실은 더욱 황량하다. 내일을 꿈꿀 수 없는 환경, 불안한 미래. 어른과 아이 모두 하루하루 고단한 현실을 버텨내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그저 이들에게 소량의 쌀과



1 엔흐마라르 만나러 가는 길 쓰레기가 널려있다
2 화상입은 배를 보여주는 엔흐마라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적은 양의 석탄을 줄 수 있을 뿐이다. 매서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공공 얼었던 땅에는 초록빛 새싹이 드리울 것이다. 그리고 이들도 언젠가는 드넓은 몽골 초원에 자신만의 씨앗을 틔울 것이다. 어서 빨리 봄의 서광이 비추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본다.

글 신유정 · 홍보팀

*엔흐마라르의 화상치료에 도움을 주실 분은 해외사업팀 (02-331-7087)으로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한이 머리에 생긴 작은 혹




아직은 세상의 빛이 어색하기만 할 한이(가명)는 이제 생후 3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한이야~”하고 얼러주면 푹망푹망한 눈으로 미소 지으며 바라보는 한이에게는 머리에 작은 혹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출생 과정에서 생긴 혈종입니다.

한이는 우측에 두개의 혈종이 생긴 채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분만 시에 아이 스스로 나오지 못해 외부의 힘으로 세상밖으로 나오게 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지요. 두개 혈종은 마치 혹처럼 튀어나와 있습니다. 한이가 가지고 있는 혈종은 분만 시 두개골의 변형으로 생기며 머리 부위에 혹이 난 것처럼 부어오르는 증세를 보입니다. 보통 어린아이의 경우 자연히 흡수되어 이쁜 두상으로 바뀐다고 하여 희망을 갖고 기다렸지만 한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이의 혈종은 자연스레 흡수되지 않고 결국 그대로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한이를 데리고 큰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 본 결과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위탁모의 정성어린 손길 안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으나, 한이는 아직 너무 어리고 병원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작고 여린 아이가 수술을 위해 일주일 정도를 감당해야 한다니 마음이 아파옵니다. 위탁모는 이런 한이를 위해 이쁜 두상을 만들어 주려고 수시로 노력합니다. 19년 동안 수많은 입양대기아동을 보살피며 크고 작은 병을 많이 봐왔지만 한이는 조금 더 특별합니다. 작고 어린 한이가 머리를 힘겹게 드는 것이 혈종 때문은 아닌지 늘

노심초사 하며, 아이의 발달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후 3개월인 한이의 신체 발달 수준은 갓 태어난 한달 정도 된 아이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꼬물거리며 스스로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혈종 외에 의료적인 문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이를 낳기 위해 고생한 친모의 마음까지 헤아리며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랑을 주기 위해 매일 정성으로 돌보는 위탁모의 사랑 때문이겠지요.

홀트에는 한이와 같이 크고 작은 의료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많습니다. 점차 알싸한 바람이 불어오는 날씨에 우리 아이들은 외부환경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세찬 바람도 견디며 곳곳하고 씩씩하게 자라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글_김봉현 · 아동양육팀



1 엎드려서 진료를 받는 모습
2 위탁모 품에 껴안긴 한이



홀트아동복지회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어린 생명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고 있습니다.

ARS 060-700-1006
정기후원 1899-0923
후원계좌 기업은행 048-036405-04-014



사랑 가득한 위탁가정을 찾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가정위탁보호를 통해 가정과 다름없는 환경에서 자랄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후 1개월에서 3세 미만인 이 어린이들은 지능, 언어, 신체, 정서발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안정된 가정 속에서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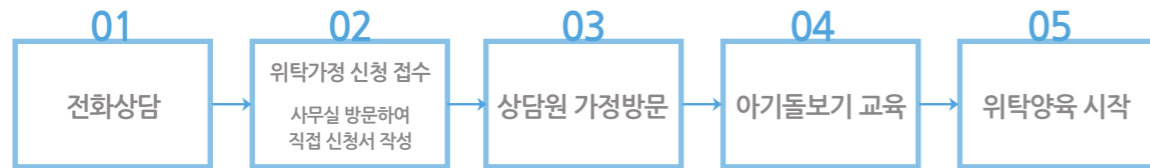


위탁가정 선정요건

- 1) 신청인과 가족 모두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아동에 대한 애정이 있는 가정
- 2) 신청인의 나이가 25세이상 60세 미만으로 아동양육의 경험이 있어야 하고, 막내가 초등학교 이상인 가정
- 3) 홀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1시간 이내 살고 있으며, 양육 공간이 여유 있는 가정
- 4) 가족 모두 위탁양육에 협조적이어야 하며, 다른 부업을 하지 않은 가정



위탁가정 선정절차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1부
- 2) 건강진단서 1부(간염 여부 기록 포함)



위탁가정 지원

- 1) 소정의 양육비 및 교통비 지급
- 2) 아동 양육 물품 지급
- 3) 아동 의료 지원



문의 및 신청

- 홀트아동복지회 아동양육팀/ 02) 331-7040~7045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합정동 471)
/ 지하철 2, 6호선 합정역 8번출구

이웃에서 동반자로

KB손해보험



"많지 않은 후원금을 드려서 다소 송구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귀한 상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지원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KB손해보험입니다!!!" 지난 10월 본회 62주년 기념식에서 KB손해보험 담당자가 위트 있는 수상소감으로 장내 분위기를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날 KB손해보험은 홀트에 도움을 준 여러 후원자와 함께 유공후원단체 대표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KB손해보험은 홀트와 건물을 함께 사용하는 이웃인 만큼 더욱 끈끈한 협력을 해왔습니다. 2012년 위탁가정 날들이 행사를 시작으로 홀트와 사회공헌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현재는 다양한 사회공헌을 통해 책임 있는 후원단체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한부모 가정에 양육물품을 지원

하는 'Baby kits' 사업은 현재까지 홀트와 KB손해보험이 함께 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기금후원으로 끝나지 않고, KB손해보험 임직원들은 직접 소매를 걷고 나섰습니다. 양육물품을 손수 준비하고, 사무실에서 '아기 신발 만들기'에도 동참하며 행동하는 봉사를 병행했습니다.

현재까지 다양한 도움을 주면서도 내년에는 새롭게 미혼한부모의 취학아동 자녀들을 돕기 위한 물품지원 프로그램인 'Kids kits 프로그램(가칭)'도 계획중입니다. 내년 1월부터 시작될 이 프로그램도 지금처럼 많은 미혼한부모 가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홀트와 미혼한부모가정의 이웃이자 동반자로, 다 함께 행복한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홀트

특별한 신발, 그 안에 담긴 따스함

참여형 기부 캠페인 '아기 신발 만들기'

저는 '신발'입니다. 신발 중에서도 작고 보드라운 발에 신겨질 '아기 신발'이지요. 어디를 가든지 저는 함께합니다. 한껏 멋지게 차려입고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도, 누군가를 위로하러 갈 때도, 휴식을 위해 어디론가 훌쩍 떠날 때에도 말입니다. 홀트에서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들도 입양가정을 향해, 사랑 넘치는 그 곳을 향해 힘차게 한 걸음 내딛기를 응원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와 제 친구들을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 친구들의 고향과 제가 찾아가고 싶은 아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고향과 만들어준 이가 다 다르답니다. 사무실에서 만들어진 친구, 집에서 가족의 손길로 만들어진 친구, 학교에서 친구들과 만들어진 친구... 그러나 완성시킨 이들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신입사원들의 마음을 담은 신발, 올리브영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신발들이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신입사원들이 교육을 수료하고 정직원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날, 그 기쁨의 마음을 담아 아이들의 첫 걸음을 응원하기 때문입니다. 바느질이라고는 경험해 볼 일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2~3시간의 바느질이 고단하기도 할텐데 왜 항상 그곳은 웃음이 넘치고 있는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아이들의 첫 걸음과 사회인으로서의 첫 마음이 하나였기 때문일까요?

글로벌 신발, 구글

해외 각국의 이모, 삼촌들이 제 친구들을 만들어주러 방문했습니다. 다양한 모습 만큼이나 다양한 친구들이 탄생되었습니다. 아기천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카드에도 다양한 언어로 응원의 말이 적혔습니다. 그 자리에는 홀트를 통해 해외로 입양된 친구들뿐 아니라 참여자가 있었습니다. 친구와 같은 아이들이 가족을 만나길 응원하는 자리라 봉사에 더욱 의미가 있었다고 말하며 가장 빠른 속도로 한 켤레를 완성했습니다. 응원의 마음이 바다 건너 멀리까지 닿을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사랑만 있죠?” 보안철저, 세메스

이곳에서 온 친구들의 고향은 수원의 어느 사무실입니다. 다 완성되어 이제 아기천사들을 찾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친구들이 커다란 검색대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외부로의 정보유출에 있어 보안이 철저한 기업이기엔 우리들도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검색대를 통해 보니 저희 안에 엄청난 크기의 무언가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아기천사들을 응원하는 커다란 사랑이었습니다. 회사의 업무로 고단했을 몸과 마음이었지만, 자그마한 신발 한 켤레 속에 응원과 사랑을 듬뿍 듬뿍 담아주셨네요.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의 손길이 캠페인에 동참해주셨습니다. 매월 참여해주시는 KB손해보험, 전국의 임직원들이 참여한 삼성전자·삼성SDI·흥국생명, 롯데카드, 아모레퍼시픽 등. 다양한 손길로 만들어진 신발은 검수를 거쳐 아이들의 어린 발을 감싸주고, 첫 걸음을 응원하기 위해 전달되고 있습니다.

글_김유진 · 나눔협력팀



수선 작업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완성된 신발들은 검수 후, 아이들에게 전달됩니다. 모든 신발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상태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는 수선이 필요합니다. 이 수선작업에 동참해주시길 손길을 기다립니다.

- 시간 매 주 수요일 10시~12시 또는 14시~16시
- 장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9 홀트아동복지회
- 인원 오전, 오후 각 7명
- 문의 02-331-7142, withholt@holt.or.kr

맘 든든 울타리

아동·청소년 주거지원사업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달팽이 집을 지읍시다 어여쁘게 지읍시다 점점 좁게 점점 넓게...”

“우리 집에 놀러올래? 학교 끝나고 같이 놀자”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다시 눈을 감는 곳, 편안한 '우리 집'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집'은 매일 매일의 역사가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과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소년소녀들에게 '집'은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꼭 필요한 환경입니다. 홀트는 아동과 청소년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주거지원사업 '맘 든든 울타리'를 시작했습니다. '맘 든든 울타리'의 주거비는 모두 합해 다섯 종류입니다. 매달 납부하는 월세, 겨울철 추위를 막는 난방비,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고치는 개보수비, 아이의 성장에 꼭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 물품구입비. 그리고 현 주거지가 아동에게 위협이 되어 당장 이사가 필요한 경우 긴급히 지원하는 보증금까지, 조금씩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우리 이웃의 얘기를 들어보실래요?

보증금 긴급지원을 받아 이사 가게 된 은혜

글을 모르는 엄마와 은혜(가명)가 두 돌 되기 전 가출해서 연락 두절된 아빠. 엄마는 공장일, 식당일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다가 양쪽 어깨를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마련한 월세 방은 밤에는 너무 어두워서 은혜 혼자 다닐 수 없습니다. 두 뺨 길이의 담장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앞집에서는 담배를 피우는데 그 연기가 은혜네 집까지 새어 들어옵니다. 가끔 앞집 화장실 물이 밖으로 흘러나올 때면 은혜는 마당에 두었던 신발을 얼른 방으로 가져옵니다. 은혜네 월세 방은 햇빛이 잘 들지 않고 환기도 어려운 탓에 곰팡이가 방 안에 가득합니다. 최근에는 장롱까지 곰팡이가 번져서 장롱 속에 넣어둔 옷가지를 모두 꺼냈습니다. 엄마는 은혜를 위해서 당장이라도 이사를 가고 싶지만, 돈을 모으기 어려웠던 지난 날과 이를 보여주는 통장 잔액을 보니 한숨만 깊어집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에 신청했던 '맘 든든 울타리'에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보증금을 지원받아서 이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엄마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입원하였다 최근 퇴원하였고, 요즘 새로 지낼 보금자리를 알아보느라 복지관 선생님과 이 동네 저 동네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햇살이 드리우고 아이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곳으로 가고자 꼼꼼히 따지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은혜도 새 집에 어떤 친구를 초대할지 벌써부터 행복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개보수비를 지원받아 새 집을 만든 예은이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일리스트를 꿈꾸는 예은이(가명)입니다. 저희 엄마아빠는 교통사고로 제가 열 살 때 하늘나라로 가셨고, 저는 그 때부터 이모랑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모가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시는데 가끔 엄마아빠가 보고 싶지만 어렸을 때처럼 울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지만, 학교에서 동사무소에 가서 수급자 증명서를 떼어 오라는 말을 듣고, “내가 가난한 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모의 사랑과 헌신으로 저는 씩씩하게 잘 클 수 있었습니다. 이모는 저를 보면서 다 컸는데 방 하나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늘 말씀 하였고, 최근에 새로운 집 한 채를 다시 마련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더니 너무 좋아서 이모랑 집을 보러 갔는데 40년 된

낡은 주택이라 당장 이사 갈 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모는 우리가 조금씩 고치고 청소해서 다 되면 이사 오자고 하셨지만 저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그 뒤로 저랑 이모는 주말마다 페인트 칠, 문짝 수리, 튼나는 대로 집을 고쳤지만, 집안 거의 모든 곳을 손 봐야 했고 수리비는 얼마나 나올지, 이사는 언제 할 수 있는지 걱정이 한 가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복지관 선생님이 '맘 든든 울타리'를 통해 개보수비용을 지원 받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이제는 깔끔하게 도배와 수리가 마무리되어 이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 방이 생겼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월세를 지원받아 퇴거위기에서 벗어난 서진이

저는 부산에 사는 서진이(가명)입니다. 두 살 때부터 부산에 살았는데 엄마 말로는 아빠가 너무 무서웠고 경제적인 이유로 급히 이사 왔다고 합니다. 엄마는 그 때부터 식당 설거지, 파출부를 비롯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너무 무리한 탓에 지금은 전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허리디스크가 심해져서 주로 집에 계십니다. 저는 일곱 살 때부터 엄마를 돌봐드리면서 지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보증금이 최대한 적은 곳으로 알아보다보니 월세가 비싼 곳으로 오게 된 거라고 엄마가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월세가 부담되어 저희 집은 1년 넘게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 층 주인집을 지날 때마다 눈치가 보이고 마음 편히 공부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행히 '맘 든든 울타리'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난 4월부터 매달 월세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월세 지원금으로 더 이상 월세가 밀리지 않아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고, 공부도 마음 편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슈퍼 가는 길에 주인집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이 따뜻한 베풀을 잊지 않고 사회인이 되었을 때 작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ttp://www.holt.or.kr](#)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필요하신가요?
러브 인 액션! 홀트의 러브하우스, '맘 든든 울타리'를 기억해주세요. 주거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과 언제나 함께합니다.

글_채윤경 · 복지전략팀



향기나는 결연, 허브

과학자를 꿈꾸는 진영이



추운 겨울, 복수초(福壽草)는 눈이 소복히 쌓이고 얼음이 퐁퐁 언 맨땅에서 셋노란 꽃을 피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홀트에는 환경은 어렵지만 복수초처럼 소중한 꿈을 키워나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국내아동결연을 시작한 지 한 해가 지나면서 후원자님들의 사랑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이들의 이야기들이 이곳 저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모습으로 예쁘게 꽃피울 아이들의 이야기를 지금 함께 전해드립니다.

진영이의 가장 큰 변화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인 진영이는 몸이 아픈 엄마와 함께 살다가 엄마의 건강이 더 나빠져 입원하면서 처음으로 아빠와 단 둘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픈 엄마와 생활하다가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된 진영이는 조용한 편이었고 방과후에는 주로 집에 홀로 남아있었습니다. 진영이를 양육하면서 일도 해야 하는 아빠와 진영이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홀트 종합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아이를 도울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향기나는 결연, 허브'로 후원자님들과 소중한 인연을 맺어주시기로 결정


했습니다. 후원을 통해 진영이는 방과후 시간 동안 공부도 하고, 그토록 배우고 싶었던 컴퓨터도 배우면서 또래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연 후 약 6개월이 지나고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궁금한 마음을 안고 진영이에게 결연 전과 결연 후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진영이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무언가를 자주 만들고 싶어졌어요. 원래 만들어보고 싶었던 게 많았거든요.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나는 것들도 있었는데 선물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진짜로 해볼 수 있게 되었어요."라고 말하는 진영이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진영이의 꿈은 다름 아닌 과학자입니다. 손재주가 좋고, 조립이나 퍼즐을 좋아하는 아이를 눈여겨본 담임선생님께서 과학경시대회에 출전해보기를 추천하였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진영이네 가족은 과학상자를 구입할 수 없어 경시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던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영이에게 후원자님이 생겨나고 머지않아 후원자님 어머니께서 남긴 유언에 따라 진영이에게 귀한 선물금을 보내셨습니다. 진영이는 아빠와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함께 상의한 끝에 과학상자를 선물로 받고 컴퓨터학원에서 공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즘 진영이는 후원자님의 선물로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진영이의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제일 큰 변화는 후원을 받기 전의 진영이는 조용한 편이었고, 싫고 좋음을 잘 표현하지 않아 아빠가 먼저 제안하는 일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지금의 진영이는 공부에 대한 흥미도 생겼고 무언가를 스스로하려는 행동이 늘어난 점이라고 합니다. 아빠도 후원금을 온전히 진영이만을 위해 사용하게 되면서, 진영이가 흥미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 더 알게 되었고 지금은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주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진영이가 후원자님께 드리는 인사는 짧지만, 빛나는 눈빛으로 꿈을 키워 나가겠다는 다짐이 함께 들어있는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진영이에게 허브 결연 후원은 아이의 마음에 퐁퐁 숨겨둔 바람을 드러나게 해준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결연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세요.

결연아동들이 향기나는 결연, 허브를 통해 얻게 된 것은 단순한 경제적 도움을 넘어 후원자님을 통해 생긴 '가능성'과 '기회'였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인이 될 때까지 후원자님의 든든한 사랑이 지속된다면 꿈을 향해 걸어가는 길을 응원해준 누군가가 있었다는 소중한 기억이 남을 것입니다. 홀트는 향기나는 결연, 허브로 지속적인 도움을 받는 결연아동들에게 생김 변화들을 모니터링하고 후원자님께 성장보고를 통해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글_이현주 · 홍보팀

향기나는 결연, 허브는 후원자님의 도움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정아동과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는 입양대기아동, 아이를 홀로 양육하는 미혼한부모 가정의 아동을 돕고 있습니다. 국내결연을 통한 후원으로 결연아동은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를 정기적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을 위해 Special Case 지원으로 결연아동의 양육환경에 변화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홀트의 전국 복지관과 위탁가정을 통해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자원연계, 상담, 의료서비스 등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및 신청 : 1899-0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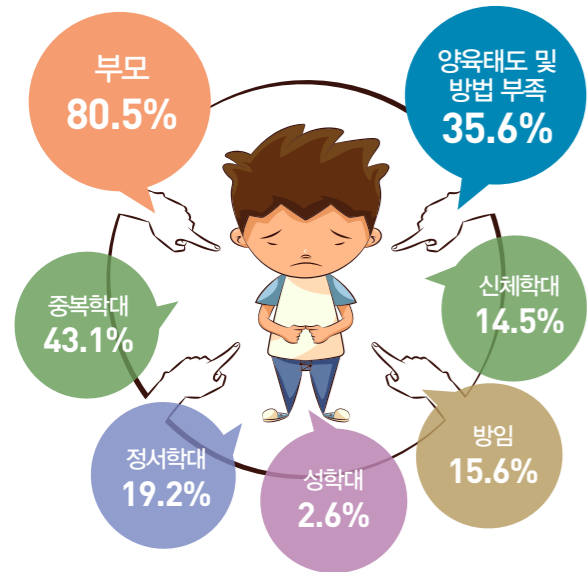
‘체벌’이 아닌 ‘사랑’으로 훈육해 주세요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말하는 아동학대 이야기

2016년 아동학대의심신고건수는 총 2만5,878건으로, 이 가운데 아동학대로 분류된 사건은 1만8,700건으로 2015년에 비해 59.6% 증가했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부모들의 사유는 ‘훈육’이었다고 하나, 아동들은 ‘두렵고, 힘든’ 체벌이라고 말합니다. 11월 19일은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홀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부모와 아동을 만나면서 느꼈던 ‘아동은 아는, 부모는 모르는 학대’ 사례를 통해 우리사회 아동학대 이해를 높이고 더불어 우리 아이들의 행복도 높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바라는 건 ‘체벌’이 아닌 ‘사랑입니다’

2016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판단된 18,700건 중 피해아동 연령은 만13~15세 아동이 전체 22.5%로 가장 많았고, 만10~12세가 20.6%, 7~9세 아동이 19.2%로 나왔으며 가족유형은 친부모가족이 53.1%(9,931건)로 가장 많았고, 행위자는 부모의 경우가 80.5%(15,048건)로, 행위자 연령별로 40대가 44.0%(8,228건), 30대가 29.7%(5,558건)로 대다수의 학대행위자가 30~40대의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인 것으로 유추 가능합니다. 이런 특성을 반영하듯 행위자들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으로 학대를 한다는 사유가 전체의 35.6%였으며,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과 부부 및 가족갈등이 10.4%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아동이 잘못해서 때렸다는 학대사유와는 사실 반대되는 결과로 보입니다.



아동은 아는, 부모는 모르는 학대?

#아이를 혼자 두지마세요. 방임입니다.

“3세, 5세 아이들이 자는 시간이라며 친구들과 술을 마신 엄마. 그러나 아이들은 엄마가 없다며 울면서 길거리를 헤매다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야간, 주말 근로 등으로 영유아를 집에 두고 문을 잠그고 일을 나가면서 ‘홈CCTV로 아이가 안전하지 지켜보니 괜찮다’고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영유아의 경우 위험이나 사고시 보호해 줄 부모나 성인이 부재하는 자체가 아동을 위험한 상황에 방치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음에도 아직 부모님들은 ‘이런 일로 무슨 학대냐!’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아이들은 부모 없는 시간이 두렵고 무섭다는걸 생각해 주셨으면 해요.”
(남인애 · 최선호 상담원)

#규칙을 정하고 때리는 체벌은 교육이라고요? 신체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2대씩 맞기로 했다’, ‘시험문제 틀린 개수만큼 맞기로 약속했다’, ‘아이가 위험한 물건을 만지려고 해서 교육상 때렸다’, ‘형제끼리 싸워서 훈육차원에서 때렸다’, 부모들은 약속대로 때렸고, 아이가 잘못해서 때린 거라며 ‘정당한 훈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2대로 시작한 체벌은 20~80대까지 넘어가고 부모의 손과 발로 아동의 신체를 때려 멍과 상흔이 생기는 체벌은 엄연한 폭행입니다. 훈육은 교육이 수반되는 행위고, 체벌은 고통을 주는 행위로 전혀 다른 의미이며,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 대의 체벌도 위험한 이유입니다.” (신지선 · 임중현 상담원)

#폭언, 비하발언은 정서학대입니다.

“‘씨오’, ‘미오’ 이런 욕설은 가볍다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청소년의 경우 ‘너 때문에 못 산다.’, ‘너는 살 가치가 없다.’, ‘나가서 죽어라.’ 등의 말을 부모로부터 들을 때 깊은 상실감과 자존감도 낮아져 나쁘게는 ‘자살’까지 생각하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아이들은 ‘부모가 다정하게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 그 간단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엄태준 · 정승원 상담원)



#부모의 지나친 알코올, 부부싸움도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술만 먹으면 아이한테 손찌검을 하거나 욕설을 하면서도 자신은 안했다고 말하는 부모님이 계세요. 아이는 매일이 지옥인데, 부모는 자고 나면 또 다시 술을 드세요. 강제 치료도 쉽지 않다보니 개선이 되지 않아요. 또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물건을 던지고, 욕설하고 서로 때리는 부부싸움은 보는 아이들에게는 ‘공포’이고 ‘자신도 어긋나면 맞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주는 만큼 부모들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최근 정서학대가 신체학대보다 높은 이유가 아이들이 그만큼 마음의 상처가 크다는게 아닐까요?”
(정상호 치료사 · 염은성 상담원)



#부모 잤대 규칙, 청소년문화 이해 부족이 아쉬워요.

“통금시간, 모바일 사용시간 제한 등 자녀들의 학습 능력, 청소년 및 또래문화를 무시하고 부모님 잤대를 규칙으로 만들고 자녀들이 어거면 핸드폰 · 노트북을 부수거나, ‘머리가 커서 땀땀’며, 아이를 무차별적으로 체벌하기도 하고, 어떤 부모님은 ‘나가라’며 가출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신체 · 정서학대를 하고도 부모들은 아이들 문제라고 하시죠. 아이들은 말 안 통하는 부모보다 또래에서 위안과 이해를 얻다보니 집에서 점점 멀어지는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성장하듯 함께 성장하고 아이와 상의하고 논의하면서 자녀 입장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박지혜 · 이환희 상담원)

아이들은 말합니다. ‘부모님은 제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화를 내세요.’, ‘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랑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라고...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처럼, ‘체벌’은 결코 ‘사랑’이 될 수 없지만, ‘사랑’은 진정한 ‘훈육’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 사랑으로 지켜주세요.

고른 숨을 내쉬며 아름다운 길(美路)을 함께 걷다

(주)미로 서동진 대표



소아 천식을 앓고 있는 딸아이를 위해 직접 가슴기를 만든 아빠가 있습니다. 기계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지만 오로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그릇처럼 구석구석 닦을 수 있게, 누구나 쉽고 완벽하게 세척할 수 있게 만들어서 딸이 조금이라도 편히 잠 들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시작한 일입니다. 거기에 뜻이 맞는 두 남자의 도움이 더해졌고 덕분에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숨을 쉬게 된 딸을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며 홀트 창립 62주년 기념식에서 감사패를 전달받은 바도 있는 서동진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miro



‘가슴기가 특별할 게 뭐가 있어?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검색창에 ‘미로 가슴기’를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내·외의 숄한 수상기록들도 눈에 띄지만 특히 아이들 둔 엄마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식으로 인해 숨쉬는 것조차 불편해 밤에 제대로 잠 못 자기 일쑤인 둘째 딸을 위한 아빠의 마음으로 만든 가슴기는 그 존재에 대한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인정받으며 오늘의 (주)미로를 일궈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인터뷰를 위해 만난 서동진 대표와 오용주·김민석 대표, 그리고 미로의 디자인은 참 많이 닳았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온화하며, 말투와 선이 참 부드럽습니다.

“인하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스터디 모임에서 만났어요. 각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슴기를 만든 이유와 비전에 공감한 두 대표가 합류해주었죠. 시작할 때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라 생산기술연구원에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부탁하며 간신히 디자인을 잡았는데, 이 친구들이 함께하면서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게 됐어요. 각자 자기 전공과는 차이가 있는데도 일을 어찌나 잘하는지 오 대표는 정말 싸게 사서 가치 있게 판매하는 능력이 있고, 김 대표도 판매는 말할 것도 없고 본인의 스타일처럼 디자인 감각이 좋아요. 제 부족한 면을 완벽히 메꿔주는 사람들을 만난 거죠.”

사실 미로 가슴기는 국내 판매보다 수출이 먼저 이루어진 제품입니다. 미처 완성되지 못한 제품이었지만 ‘세상에 한번 내놓아보 재!’라는 생각으로 선보인 박람회에서 김 대표가 덜컥 바이어와 계약을 맺어버린 겁니다.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결사반대해봤자 이미 입금까지 완료된 상황. 김민석·오용주 대표가 이런 식으로 일과 마케팅을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면 서동진 대표는 나눔을 저지르고 보는 스타일입니다. 홀트와의 인연도 바로 그렇게 맺어졌죠.


“외근을 나갔다 왔더니 보고가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홀트라는 단체에서 후원 요청이 들어왔다고. 바로 연결해달라고 해서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전시회에서 저희 제품을 보고 바자회에 5~10개 정도 기증해줄 수 있냐고 문길래 흔쾌히 30개를 기증했고, 그 후로 겨울마다 미혼모단체나 보육시설에 200~300개씩 후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보고를 다른 두 대표가 받았다면 아마 고민의 시간이 좀 길었겠죠? 하하.”

홀트에 대해 검색하고 대화한 후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두 대표와는 상의할 틈도 없이 덜컥 후원을 약속해버렸다고 합니다. 미로와 서동진 대표의 나눔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음 스토리펀딩 참여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제품을 정가로 구매하면 구매자명으로 같은 제품 하나를 후원하는 이벤트였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여러 군데 후원금을 내기는 했는데 본격적으로 나눔에 대해 생각한 건 일을 하면서예요. 워낙 출장이 많아 사고 위험도 높다 보니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하고 싶은 건 지금 해야 한다!’ 가슴기를 만드는 거나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 나눔을 실천하는 것 모두 마찬가지예요. 당장 내일 죽을 지도 모르니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은 당장 해야 한다는 거였죠.”

지금이야 한마음이지만 처음에는 두 대표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한두 대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양을 후원하는 건 부담스러우니 고민을 해보자는 거였죠. 하지만 그때 서동진 대표는 이 한 마디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미혼한부모나 고아원에서는 우리 제품 못 산다. 세상에 도움이 되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듯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행동하자.”

미로(美路). ‘지금은 미로 속에 갇혀 있지만 이곳을 빠져나가면 아름다운 길이 있을 것이다’라는 뜻처럼 서동진 대표와 미로가 행하는 나눔은 앞으로 더 큰 빛으로 사람들을 미소 지으며 앞으로 나아가게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실천하는 나눔이 세상을 얼마나 더 아름답게 할지,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HOLT NEWS

사회공헌

벽산, '아기 신발 만들기' 봉사활동 참여



종합건축사재계업 벽산에서는 11월 9일,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를 위한 '아기 신발 만들기' 봉사 활동에 전 사업장의 직원들이 다함께 참여했다. 김성식 벽산 대표이사는 "앞으로 임직원 모두 실천할 수 있는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코트야드 메리어트 '행복 나눔 기부금 전달식'



10월 25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남대문 호텔에서 '행복 나눔 기부금 전달식'이 진행되었다. 이번 후원금은 3년 동안 메리어트 호텔에서 진행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후원금은 미혼한부모 자립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IBK기업은행과 함께 국립공원 체현

IBK기업은행은 9월 23일, 미혼한부모가정 20여 명과 함께 'IBK자연나누리사업'을 통해 북한산 국립공원 생태체험 및 애착인형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체험했다. 'IBK자연나누리사업'은 소외계층에게 국립공원을 무료로 견학할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은행, 우리나라신탁 업무협약



9월 27일, 우리은행과 '소외아동 지원을 위한 우리나라신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하였으며, 이날 우리은행은 기부금도 전달했다.

진스엠파워, 사회공헌 협약식



9월 11일, 운동센터 진스엠파워는 6층 강당에서 사회공헌 협약식을 갖고, 10월 28일 기부마켓을 열고 다양한 물품과 운동센터 체험권을 제공했다.

본부

국내입양 부모교육

10월 19일, 홀트 6층 강당에서 국내입양에 관심이 있는 예비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입양의 특성과 이해, 입양아동의 양육 및 심리, 아동학대의 올바른 이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위탁가정 응원콘서트

9월 29일 위탁가정 응원콘서트 '당신은 엄마입니다'가 열렸다. 이번 공연은 홀트패밀리이자 국내입양인 박요한 씨가 위탁모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자 마련했다. 또한 입양가족모임 홀트한사랑회에서는 식사를 제공했다.



설민석 나눔역사 오픈 파티



9월 26일, 한국사 전문가 설민석 씨와 함께 '설민석 나눔역사 오픈파티'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설민석과 함께 쓰는 나눔역사' 캠페인의 일환으로, 설민석 강사의 미니강연과 관객과의 소통 시간 등으로 구성되었다.

지방사무소

대구사무소, 사생대회 및 여성백일장



10월 14일, '홀트와 대구맘이 함께하는 사생대회 및 여성백일장'이 대구 이월드에서 진행됐다. 대구맘카페 운영진 및 회원, 협찬사의 도움으로 참여한 사람들 모두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충청사무소, 홀트한사랑회 연말모임



11월 18일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청사업 "행복당양가족 시즌2"의 지원으로 홀트한사랑회 대전·충청지역 연말모임을 실시했다.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나, 부모자녀 프로그램,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보냈다.

인천사무소, 인천가족어울림자리 명랑운동회



10월 21일에 입양가족, 자원봉사자, 기관종사자 등 약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인재개발원 운동장에서 인천가족어울림자리가 개최됐다. 올해는 '명랑운동회'로 진행되어 아이들과 가족 모두 잔디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놀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광주사무소, 삼성나눔워킹 페스티벌 참여



9월 23일, 광주사무소에서는 광주 서구 월드컵 경기장 남문주차장에서 광주광역시·삼성전자·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최로 열린 '2017삼성나눔워킹 페스티벌'에 참여해 '아기신발 만들기'를 홍보하고 판매했다.

강원사무소, 국내입양가족 사후 워크샵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홀트강원한사랑회 입양 부모를 대상으로 '애착형성을 위한 부모의 역할', '반편견 입양교육'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의 역할과 입양가족 경험담 등을 함께 나누며 공유하는 시간을 보냈다.

일산복지타운

제8회 가을산행캠프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전북 번산반도 일원으로 산행캠프를 다녀왔다. 원래 거주하는 장애인 모두 사고 없이 등산을 완주했으며, 체험과 관광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다.

2017 마음이음 나들이



9월 16일, 하나금융나눔재단과 함께하는 '2017 마음이음 나들이'를 진행했다. 하나금융나눔재단 임직원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하고, 맛있는 식사도 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홀트학교

2017 교내 전통놀이 한마당 축제 개최



9월 27일 '2017 교내 전통놀이 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 체급별 씨름경기 및 전통놀이 체험을 통해 조상이 남긴 전통문화의 소중함과 우수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종합사회복지관

고양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정책 보고회



장애인복지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위한 '고양시 장애인복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조사연구사업-내가 만드는 장애인복지정책' 최종보고회를 9월 15일 실시했다.

대구복지관, 노인의 날 기념행사



9월 28일, 제 21회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홀트실버노래자랑대회'를 개최했다. 어르신 300명과 이진훈 수성구청장, 김숙자 수성구의회 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고전무용, 난타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도 함께했다.

HOLT NEWS

운봉복지관, 문화체험 활동



9월 18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가자 문화체험활동을 울산 대왕암공원으로 다녀왔다. 총 161명의 어르신들이 참가하였으며 대왕암 관광, 산책로 탐방, 점심식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하남복지관, 연탄지원사업



11월 9일, 하남도시공사의 지원으로 관내 저소득 가정에 연탄지원사업을 진행하였다. 총 16,000여장의 연탄을 지원하였으며 하남도시공사와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임직원들이 직접 대상 가정에 연탄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영복지관, 내가 사는 수영이야기



11월 23일까지 총 15회기에 걸쳐 지역 어르신들이 기억하는 수영구의 과거와 현재를 그림으로 담아보는 '내가 사는 수영이야기'를 진행했다. 어르신들이 직접그린 그림과 추억을 담은 글은 곧 소책자로 발간될 예정이다.

본리복지관, 저소득가정 지원 사업



9월 21일, 추석을 맞이하여 이마트 감삼점 후원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 50세대에게 온누리 상품권을 지원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전통시장을 이용하여 추석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아침粥, KTCS 연합 캠페인



11월 1일, 대전KT인재개발원에서 KTCS 임직원과 함께 미혼한부모 자립을 돕기 위한 '하트Nx원더담 캠페인 및 플라마켓'을 개최했다. 미혼한부모가 만든 수공예품과 제과류를 판매하여 큰 호응을 받았고,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아름뜰, 오감만족 제주도 여행

아름뜰에서는 미혼한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다. 이들은 가을 풍광을 만끽하고, 오감만족의 여행을 하며 지친 심신을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대구클로버, 가을캠프 '행복한 가족애'

대구클로버에서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양국



부담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행복한 가족애(愛)' 캠프를 진행했다. 엄마와 아이들 모두 여유롭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추억을 쌓았다.

대전클로버, 성장사진 여행



9월 23일, 대전도시공사 사진동아리 후원으로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성장사진 여행을 다녀왔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소중한 사진을 만드는 기회를 가졌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춘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체육대회 개최



춘천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주최한 '2017 춘천시 다문화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가 10월 13일 국민생활체육관에서 다문화 가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전주영아원

오월드 나들이



10월19일, 아동 17명과 직원이 함께 대전의 오월드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동물을 직접 보고, 놀이기구를 타고, 버드랜드에서 직접 새들에게 먹이를 주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어린이집

중동어린이집, 가족 숲 체험



10월 28일, 어진반(만4세)에서는 가족과 함께 숲 체험을 하였다. 숲 해설가의 해설을 들으며 새 집 만들기, 색상한 만들기, 밧줄그네타기를 진행하였고 유아들의 작품을 감상하며 온 가족이 아름다운 가을 산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마포어린이집, 다문화체험



10월 16일, 한중연 아트센터에서 다문화 체험을

다녀왔다. 중국과자(월병) 만들기, 중국 전통의상 등 문화를 체험해보며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기르게 되었다.

홀트어린이집, 인성페스티벌



10월 27일, '부모님과 함께하는 인성페스티벌' 행사를 했다. 4개로 꾸며진 방에서 엄마, 아빠 손 맞사지도 해드리고, 검뎁지 놀이와 소망등도 만들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은방울어린이집, 졸업여행



11월 9일, 은방울어린이집 7세 원아들이 졸업 여행으로 특별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웅문산 벽화마을, 아생화 마을에서 특별한 활동을 하고, 펜션에서는 함께 감자, 고구마, 고기를 맛있게 먹으며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후원회

일일카페 '가족 꽃이 피었습니다'



대전후원회와 충청사무소는 위탁가정에서 부모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의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10월 25일, 대전 둔산동 소재 이디야둔산 갤러리아점에서 일일카페 '가족 꽃이 피었습니다'를 개최했다.

2017년 전국후원회 수련회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전남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전국 150여 명의 후원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후원회 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날 수련회에서는 광주시재능상생협회 축하공연과 영암군 전동평 군수의 지역특산물 지원, 감사패 전달 등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11월 23일, 가천대길병원에서 아동학대예방주간을 맞아 가천대길병원, 인천지방경찰청, 인천남동경찰서, 인천논현경찰서, 인천연수경찰서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의 날 캠페인을 개최했다. 탤런트 견미리 씨가 참여하여 희망메세지 달기,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서명운동을 독려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펼쳤다.



올 한 해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전 확인

- 지로납부의 경우 12월 20일까지 후원금을 납부해주셔야 2017년 기부내역에 반영됩니다.
- 후원자님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가 정확한지 확인해주세요.

- * 연말정산시기(1~2월)에는 기부금 영수증 요청 및 문의 전화가 많습니다. 국세청 또는 홀트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보다 빠르게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 연말 영수증 인터넷 출력 확대로 개별 우편발송 서비스는 종료되었으나 발송을 희망하시는 분은 02-331-7073~6 또는 sponsor@holt.or.kr로 신청해주세요.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www.holt.or.kr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 후원정보
▶ 기부금 영수증 출력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 ▶ 기부금 영수증 출력(성함과 주민등록번호가 제공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동으로 연결)

온라인 회원 가입자가 아닐 경우
나눔지원팀 나눔상담콜센터(02-331-7073~6)로 요청

● 후원사업 소개

위탁아동양육 후원
친부모가 키울 수 없어 홀트의 보호 아래 자라는 위탁아기들의 분유, 기저귀 등 생필품 지원과 교육비, 의료비, 재활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미혼한부모가족 후원
도움이 필요한 미혼한부모를 위해 상담과 출산 지원, 양육비 및 아동물품 지원, 의료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정 아동 후원
저소득가정 및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비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후원
생활 지원과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과 장애인을 위해 복지시설과 특수 학교를 운영해 체계적 치료와 자활훈련을 돕고 있습니다.

장학 후원
1982년부터 시작한 '홀트장학금'과 저소득가정 및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꿈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아동결연 및 사업 후원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네팔 빈민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과 급식 지원, 보건 서비스 및 의료 지원을 펼쳐 해외 빈곤국에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 복지사업의 중심은 “아동 행복”입니다

- 정기후원 1899-0923
- 후원문의 02-331-7073~6
- ARS 060-700-1006
- 홈페이지 www.holt.or.kr
- 후원계좌 479037-01-000461(국민)
홀트아동복지회



중소상공인 후원 캠페인

아무리 주어도
마르지 않는
아이사랑공간

사랑은 주고 또 주어도 마르지 않습니다.
가득 찬 공간처럼 풍성한 행복을 아이들에게 전해주세요.



아이사랑공간이란?

뜻 있는 기업이나 단체(중/소 자영업, 학교 등)가
매월 일정 금액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후원하는 캠페인입니다.

참여문의 /
02-331-7146

대휘, 관진
지훈, 진영's Pick!

AZ

성운, 다니엘
우진's Pick!

와규

재환, 성우
민현, 지성's Pick!
한우불고기



워너원이 추천하는

프리미엄
버거 3종